국내 골프여왕들 신나는 물놀이

9일 강원도 춘천 남이섬에서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월간지 K- 매거진 8월호 표지 사진촬영을 위해 지은희(왼쪽부터), 안선주, 신지애가 바나나보트를 타고 있다. /연합뉴스

최경주 세계 랭킹 13위

지난주 보다 무려 7계단 '껑충'

앤서니 김 66위, 양용은 68위

최경주(37·나이키골프·사진)가 미국프로골프 투어 AT&T 내셔널에서 우승한 뒤 세계랭킹이 13위까지 뛰어 올랐다.

10일 세계프로골프투어연맹이 발표한 랭킹에 따르면 최경주는 4.79점을 받아 지난 주 20위에서 7계단 순위가 상승했다.

최경주의 종전 최고 순위는 2003년 10월에 기록했던 15위였다. 재미교포 앤서니 김(22·나이키골프)은 66위, 양용은(35·테일러메이드)은 68위였다.

타이거 우즈(미국)는 부동의 1위를 지켰고 짐 퓨릭과 필 미켈슨(이상 미국)이 각각 2, 3위로 뒤를 이었다.

"식사하며 프로야구 즐기세요"

KIA '아웃백 스테이크석' 운영

KIA 타이거즈가 10일부터 시즌 종료 때까지 '아웃백과 함께 하는 야구관람 이벤트'를 실시한다.

특별석에 '아웃백스테이크석'을 운영해 관람객들이 야구를 보며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의 식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벤트로 가격은 4인 기준 6만원이며, 1/2립스 옵더바비, 골드코스트 코코넛쉬림프, 쿠카부라윙, 생과일에이드 등이 1회말 종료 후 제공된다. 특별석 좌석은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하거나 경기 당일 야구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박세리·김미현 ▶

"한국 시즌 3승 내가 이루겠다"

LPGA 코닝클래식 내일 개막

한국 여자골퍼들이 텃밭인 미국 오하이오주 실베이니아에서 시즌 세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12일(이하 한국시간) 밤 하일랜드 메도우스골프장(파71·6천428야드)에서 개막하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제이미 파 오펜스 코닝클래식은 유난히도 한국 선수들과 인연이 많았던 대회다.

역대 우승자를 살펴보면 단연 눈에 띄는 선수가 박세리(30·CJ)다.

1998년 제이미 파 크로거 클래식이라는 이름으로 열렸던 이 대회에서 처음 우승했던 박세리는 1999년과 2001년, 2003년에도 정상에 올라 모두 4개의 우승컵을 수집했다.

박세리는 특히 이 대회에서 18홀 최소타(61타), 72홀 최소타(261타) 등 숱한 기록을 쏟아내는 찰떡 궁합을 보여줬다.

길었던 슬럼프의 터널을 벗어난 박세리는 지난 주 끝난 메이저대회 US여자오픈에서 공동 4위에 오르며 샷 감각을 가다듬고 있다. 박세리의 우승 경쟁자는 지난해 챔피언 김미현(30·KTF)이다.

지난해 연장 접전을 펼친 끝에 나탈리 걸비스(미국)를 누르고 우승한 김미현은 올 시즌 5월 셈그룹 챔피언십에서 1승을 올렸고 6월 웨그먼스 LPGA에서 3위, US여자오픈에서 공동 8위를 차지하는 쾌속 항진을 하고 있다.

여기다 '여제'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과 세계랭킹 1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가 출전하지 않아 한국 선수들의 경쟁자는 미국의 영건 폴라 크리머와 모건 프레셀과 US여자오픈 우승자 크리스티 커(미국) 등으로 압축된다.

하지만 올 시즌 나날이 기량이 늘고 있는 김인경(19), 민나온(19), 브라질교포 안젤라 박(19) 등 한국의 영건들도 우승 경쟁에 뛰어들어 이번 대회 리더보드 상단에도 한국 선수의 이름이 점령할 것으로 보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LA 에인절스 게레로 '홈런왕' MLB 올스타전 홈런 더비

미국프로야구 LA 에인절스의 강타자 블라디미르 게레로(31)가 최고의 슬러거로 우뚝 섰다. 게레로는 10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AT&T 파크에서 열린 2007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홈런 더비에서 17개의 시원한 아치를 그리면서 홈런왕에 등극했다.

게레로는 1, 2라운드 합계 14개를 때려 결승에 오른 뒤 최종전에서 3개를 쏘아올려 2개에 그친 알렉스 리오스(26·토론토 블루제이스)를 제치고 우승했다.

아메리칸리그를 대표하는 강타자인 게레로는 2000년 홈런 더비에 출전해 1라운드에서 2개로 탈락했던 아쉬움을 달래면서 7년 만에 활짝 웃었다.

1996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그는 올 시즌에도 타율 0.325, 홈런 14개로 날카로운 타격을 과시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스포츠중계

11일(수)

▲제78회 2007 메이저리그 올스타 게임〈아메리칸-내셔널〉(08 : 50·Xports)

▲코파 아메리카 2007 준결승〈우루과이-브라질〉(09 : 35·SBS스포츠)

▲제29회 대붕기 전국고교야구대회〈상원고-경주고〉(13 : 00·KBSN Sports)

▲일본 프로야구〈요미우리-한신〉(17 : 50·SBS스포츠)

▲프로야구〈삼성-KIA〉(18 : 00·KBSN Sports), 〈한화-SK〉(18 : 30·MBC ESPN)

▲아시안컵〈우주베키스탄-이란〉(19 : 10·Xports), 〈한국-사우디〉(21 : 10·SBS스포츠·Xports, 21 : 25·KBS2)

12일(목)

▲코파 아메리카 2007 준결승〈멕시코-아르헨티나〉(09 : 35·SBS스포츠)

▲FIFA U20 월드컵 16강전〈스페인-브라질〉(12 : 05·SBS스포츠)